

울산 또 꺾다...인천도 꺾다

광주FC, 14일 홈 인천전...상위스플릿 정조준

안혁주·문민서 등 '영건' 급성장 팀 상승세 한몫 방심은 금물...막판 집중력 저하 역습 허용 경계

'노라조' 응원가 발표·병아리리그 등 팬 이벤트 풍성

울산 원정에서 값진 승점 3점을 추가한 광주FC가 상위스플릿을 향한 진격에 나선다.

광주FC는 오는 14일 오후 7시 광주 축구전용구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와 하나원행 K리그1 2024 23라운드 홈경기를 갖는다.

지난 울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광주는 홈에서 연승에도 도전한다.

광주와 맞붙을 인천은 최근 9경기에서 5무 4패에 그치면서 9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방심해선 안 된다.

인천은 최근 3연패 뒤 2무를 기록하며 서서히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5월 광주와의 홈경기에서는 종료 직전 골을 넣으며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은 1무 1패로 광주가 열세다.

설욕에 나서는 광주는 공격 선봉에 유스 출신 문민서-안혁주-이희균이 나선다.

울산전에서 결승 골을 터뜨린 이희균은 상대의 밀집 수비를 헤치며 드리블이 주특기다. 부상 회복 이후 패조의 컨디션엔 자랑하며 매 경기 결정적 기회를 서너 번씩 창출하고 있다.

광주의 신형 엔진 문민서와 안혁주는 패기 넘치는 플레이로 공수에 걸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엄지성이 후계자로 지목한 안혁주는 울산전에서 저돌적인 돌파를 선보였고, 팀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한 문민서는 공수 조율에 나선다.

인천은 짝물 수비로 광주 공격을 봉쇄하다가 단 한 번의 역습으로 골을 노린다. 에이스 무고사가 경계 대상 1호다. 문전 앞 기공할 만한 위치 선정과 결정력을 앞세워 역습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 짓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날 경기는 양 팀 모두 중원에서 치열한 몸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는 중앙 미드필더 정호연과 박태준 등이 빠른 공수 전환과 강한 압박으로 볼 점유율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신창무, 최경록 등 테크니션들은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창의적 원투 패스로 득점을 노리는 전술도 정교하게 가다듬고 있다.

광주의 창과 인천의 방패가 맞붙는 이번 대결은 선제골을 누가 먼저 넣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이번 홈경기 승리를 통해 상위스플릿 안착을 노린다.



광주FC 이희균이 지난 10일 울산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울산HD와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린 후 관중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직접 순위 경쟁을 벌이는 인천과의 맞대결이어서 승점 6점짜리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예상된다. 특히 이날 경기 2시간전부터 인기 그룹 '노라조'의 광주FC 응원가 발표, 7세 이하 어린이들

의 병아리 리그를 비롯해 다양한 팬 참여 이벤트가 개최된다. 풍성한 이벤트와 함께 끈적한 더위를 날릴 화끈한 경기를 예고하고 있어 팬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박희중기자

KBO리그 최초 400경기 선발 등판

양현종 가는길 새로운 역사로

KBO리그 역대 3번째 11시즌 연속 100이닝 기록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투수' 양현종이 KBO 리그 최초로 400경기 선발 등판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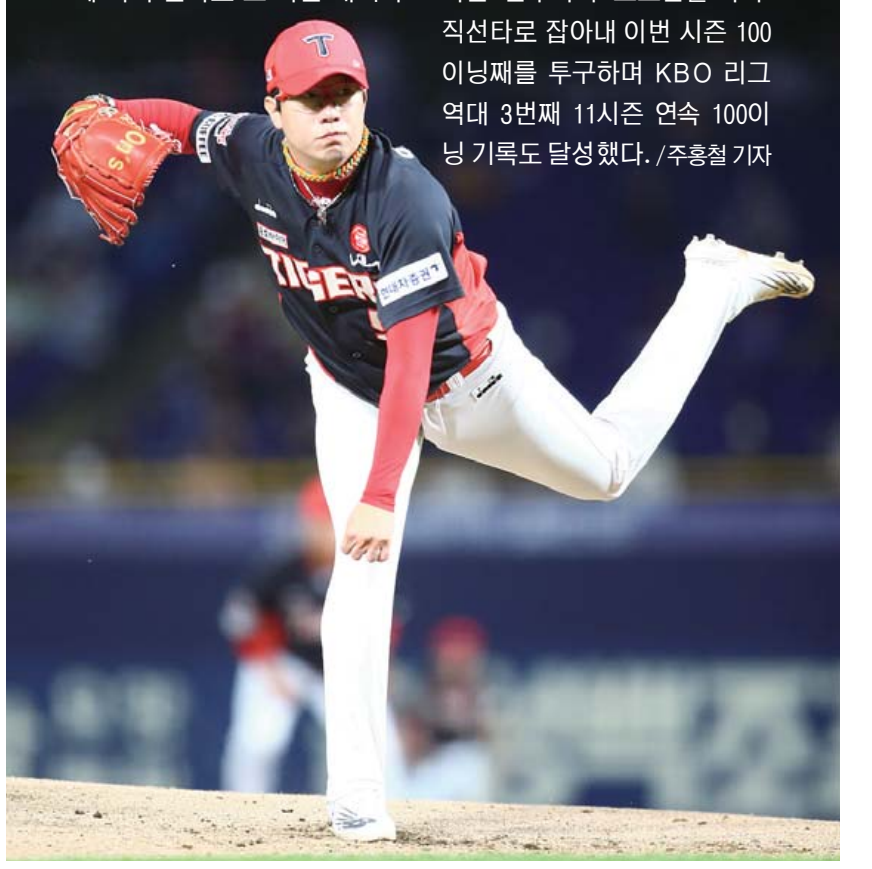
양현종은 지난 10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하며 통산 400경기 선발 등판 기록을 달성했다.

양현종은 직전 선발 등판일인 지난 4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에서 500경기 출장 기록을 달성한 데 이어 곧바로 또 다른 대기록을 수립했다.

2007년 KBO 리그에 데뷔한 양현종은 그 해 6경기 선발 등판을 시작으로 KIA 선발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 시즌 30경기 전후로 선발 등판하며 꾸준함을 과시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3시즌 연속 31경기에 선발로 나서 팀 에이스로서 역할을 다했다.

또, 양현종은 이날 경기에서 4회말 선두타자 오스틴을 투수 직선타로 잡아내 이번 시즌 100이닝째를 투구하며 KBO 리그 역대 3번째 11시즌 연속 100이닝 기록도 달성했다. /주홍철 기자




이정호 감독, K리그 통산 100경기 지휘·50승 달성

빛고를 서포터즈와 한정판 MD 제작...14일 공개

이정호 감독은 지난 22R 울산 원정 경기 승리를 통해 K리그 통산 50승과 함께 통산 승률 50%를 달성하는 기록을 만들어내며 100번째 경기를 뜻깊게 장식했다.

광주는 이정호 감독의 K리그 통산 100경기를 기념하기 위해 빛고를 서포터즈와 협업해 특별 한정판 MD를 제작했다. 한정판 MD는 지난 17R 김천전 홈경기 종료 후 이정호 감독이 직접 입어 화제가 됐던 일명 '효순' 티셔츠를 모티브로 디자인했으며 티셔츠, 머플러, 마스크티프 3종이다.

판매는 14일 오후 5시부터 광주 축구전용구장 1번 게이트에 마련된 판매처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박희중기자



정해진 '3관왕'·서예지 '2관왕'...전남 육상 희망을 보다

백제왕도 익산 2024 전국육상, 금18·은8·동7 맹활약

전남 육상이 '백제왕도 익산 2024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무더기 메달을 따내며 새로운 희망을 봤다.

전남육상연맹은 11일 "지난 6-9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대회에서 전남선수단이 전 종별 고른 활약을 펼치며 금메달 18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 등 총 3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중등부에서는 정해진(전남체중 3)이 100m, 200m, 4x4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

김태민(목포하당중 2)은 포환던지기에서, 이하은(광양백운중 2)은 멀리뛰기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하은은 세단뛰기에서 동메달을 추가했고 임사랑(전남체중 3)은 세단뛰기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어 정현담(전남체중 3)이 세단뛰기에서 금메달과 높이뛰기에서 은메달을, 오하람(전남체중 3)이 5000mW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윤재리, 김이랑, 김류진, 정해진이 팀을 이끈 전남체중은 4x400m(mix)에서 값진 금메달을 추가했다.

고등부에서는 '도약종목 유망주' 서예지(광양하이텍고 1)가 멀리뛰기와 단뛰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2관왕에 올랐다.

'전남 육상 희망' 이은빈(전남체고 3)은 100m에서, 최지선(전남체고 3)은 400m에서 각각 금빛질주를 펼쳤다.

최지선과 신규리(전남체고2)는 200m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보냈다.

고준희(광양하이텍고 1)는 멀리뛰기 금메달, 세단뛰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포환던지기에서는 문혜솔(전남체고 2)이 금메달, 해머던지기에서 박지성(전남체고 2)이 동메달, 창던지기에서 윤은환(전남체고 3)이 은메달을 추가했고 김유림, 박민수, 심규근, 박재경이 함께 달린 전남체고는 4x400m(mix)에서 은메달을 합작했다.

일반부에서는 남보하나(진도군청)가 3000m장애물 경기에서 10분19초89 기록으로 본인 최고기록을 경신(종전 10분21초15)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남보하나가 세운 기록은 한국 역대 3위다.

이아영(광양시청)은 200m에서, 김동욱과 신소망(이상 나주시청)은 남녀 1500m에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동욱은 800m에서 동메달을 추가했고, 20kmW에 출전한 김홍성(나주시청)도 동메달을 보냈다.

이어 김은미·김은정(이상 여주시청)은 5000m와 높이뛰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포환던지기 한국 신기록 보유자' 정일우(여주시청)와 해머던지기 박서진(목포시청)도 '그 실력 그대로'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박희중기자




12일 SSG戰 인크커피 브랜드 데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1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SSG와의 홈경기에서 인크커피 브랜드 데이를 개최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인크커피는 이번 브랜드 데이를 개최하며 챔피언스 필드를 찾는 타이거즈 팬들에게도 다채로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 전 중앙출입구에 프로모션 부스가 마련돼 포토존, 기프트존 등의 이벤트가 열린다.

경기 중에는 인크커피 인기 메뉴인 슬러시 빨리 마시기 등 이닝 이벤트를 진행하며 팬들에게 기프트 박스와 빙수 교환권 등의 선물을 증정한다. /주홍철 기자



걸그룹 ARTMS 승리기원 시구·시타

14일 SSG戰 특별공연도

KIA 타이거즈가 오는 14일 SSG와의 홈경기에서 걸그룹 ARTMS(사진)를 초청해 승리기원 시구, 시타 이벤트를 개최한다.

실력과 5인조 걸그룹 ARTMS는 이날 챔피언스 필드를 찾아 팬들과 함께 선수단 응원에 나선다. '타이거즈 팬'으로 잘 알려진 멤버 하슬과 최진이 각각 시구와 시타를 맡는다. 앞서 하슬은 이날 경기 전 애국가를 부른다.

ARTMS는 경기 전 펼쳐질 특별 공연에서 대표곡 'Virtual Angel'을 선보이며 팬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시구 시타를 맡게 된 ARTMS의 하슬과 최진은 "진심을 다해 응원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의 시구를 맡게 돼 영광이고 기쁘다"며 "타이거즈 팬들과 선수들에게 승리의 기운을 불어 넣어 큰 힘이 되고 싶다. KIA 타이거즈가 한국시리즈에서 우승을 결정짓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주홍철 기자

